

특집

## 6·25전쟁기 북한의 심리전 수행방식과 인적 심리전 : 적군와해사업을 중심으로

김선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문요약

북한은 6·25전쟁 시기에 무력에 의한 군사작전과 함께 적군의 전의를 상실시키고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 적군와해사업이라는 심리전을 전개했다. 조선인민군은 포로를 심리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상정했고, 적군와해사업의 성과로 획득한 포로를 인민군에 편입시켜 직접 심리전에 투입했다. 그리고 적공조직과 포로를 활용해 최전선에서 빠리와 함화를 통해 적군을 투항시키거나 적군을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려 했다.

북한의 심리전은 미국의 심리전과 달랐다. 미국의 심리전 매체는 빠리·라디오·확성기였으며, 핵심 매체는 빠리였다. 그러나 북한의 적군와해사업 매체는 특수전·포로·빠리·함화였고, 핵심 매체는 포로였다. 미국은 심리전의 이데올로기를 라디오·확성기·폭격기 등 물적 자원을 통해 원거리에서 전파했지만, 북한은 심리전의 이데올로기를 포로·적공조직·전투원 등 인적 자원을 통해 최전선에서 전파했다.

결국 미국은 빠리를 중심으로 시각 심리전과 물적 심리전을 추진한 반면, 북한은 포로를 중심으로 대면 심리전과 인적 심리전을 추진했다. 북한 지도부는 심리전에서 적의 투항과 포로의 '인민화(人民化)'를 선형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6·25전쟁 당시에 추진한 심리전은 휴전협상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이후에도 국군포로 문제와 남북

자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 중 하나였다.

주제어: 적공사업, 전쟁포로, 해방전사, 뼈라, 함화, 선전선동

## I. 머리말

6·25전쟁 시기에 유엔군과 공산군은 무기를 활용한 전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심리전(心理戰)을 전개했다. 심리전은 다른 국가와 집단의 감정·태도·견해·행동을 우리 측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중에서 대내(對內)심리전은 국내에서 홍보·정훈활동 등을 통해 적의 심리전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는 심리전이고, 대외(對外)심리전은 우방·중립국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나 집단에게 수행하는 심리전이다. 대적(對敵)심리전은 적국이나 상대집단에 실시하는 심리전으로 적군의 정신과 의지를 굴복시킴으로써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다.<sup>1)</sup>

심리전은 무력사용 여부, 활동영역, 수단과 목적 등에 따라 다시 전략심리전, 작전심리전, 전술심리전의 형태로 수행된다. 전략심리전은 정치지도자들이 자국과 우방국의 국민·군인의 의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적의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전술심리전은 적군의 심리적·물질적 욕구를 자극해 전투의지를 상실시키거나 투항을 유도하는 군사적 심리활동이며, 작전심리전은 전술적 승리보다 전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행하는 군사적 심리활동이다.<sup>2)</sup>

1)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서울: 합동참모본부, 2003), 113쪽; 117쪽; 122쪽; 263쪽.

2) 최용성, 「한국전쟁시 미군의 전술심리전 효과분석」 『軍史』 제50호(2003), 233~

6·25전쟁 당시 북한이 추진한 심리전은 유엔군의 심리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 유엔군은 심리전을 군사전술로 간주한 반면, 북한은 심리전을 독립적인 군사전술이 아니라 선전선동의 일부로 취급했다. 선전선동이 국가 내부에서 작동하는 것이 정치사상사업이라면, 국가 외부의 적에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심리전이다. 원래 선전선동은 사회주의국가에서 대중에게 사상과 정책을 침투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레닌(V. I. Lenin)이 규정한 바에 따르면, 선전은 비교적 적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고, 선동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 대중에게 하나의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다.<sup>3)</sup> 이처럼 선전선동의 기본 성격은 사상·의식·정책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이자 활동이다. 북한은 선전선동이론을 전장(戰場)으로 확장해 심리전의 이데올로기를 적군에게 전파함으로써 적군의 전투의지를 상실케 하고 투항을 유도했다.

북한이 6·25전쟁 당시에 전개한 심리전의 명칭은 “적군와해사업(敵軍瓦解事業)”이다. 적군와해사업은 적군을 와해시키기 위해 전개하는 ‘적군에 대한 정치사업’을 뜻한다.<sup>4)</sup> 북한의 심리전은 정치사상사업으로서 선전선동을 통해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투항을 유도하는 전술이며, 전선에 배치된 부대에서 수행되었다.<sup>5)</sup> 인민군은 적군와해사업이라는 명칭 대신에 “적공사업(敵工事業)”이라는 명칭도 많이 사용했다.<sup>6)</sup>

235쪽.

- 3) 까·깔라슈니코프, 「볼셰위끼의 煽動의 諸基本特徵」 『선전자』 創刊號 (평양: 문화선전성, 1949), 107쪽.
- 4)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16쪽.
- 5) 사단 정치부장, 『방어전투말 휴식기간에 각구분대 초급적공와해사업일꾼들의 사업진행계획표』 (평양: 사단 정치부, 1951.7.4),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103. 다음부터 『초급적공와해사업 진행계획표』로 축약한다. 그리고 NARA 소장자료는 처음에만 출처를 표기한다.
- 6) 제2대대 선동원·허경룡, 『적공사업에 대한 월말보고』 (평양: 제2대대, 1951.7.

현재까지 북한의 적군와해사업을 다룬 연구는 북한 심리전의 체계와 인적 자원을 분석한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북한의 심리전이 중국 공산당의 적군와해공작에서 유래했고 전투부대의 적공조직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 출신과 이들이 육성한 정치간부가 적군와해사업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sup>7)</sup> 적군와해사업과 달리, 북한의 심리전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선행연구는 주로 북한이 뼈라를 통해 수행한 심리전을 역사학·언론학·미술학·문학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sup>8)</sup>

선행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심리전은 해명해야 할 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이 6·25전쟁 당시에 수행한 심리전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북한의 심리전이 ‘선전뼈라 산포(散布)사업, 함화사업, 대적방송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되었다고 밝혀졌지만, 그 수행 방법과 내용은 아직까지 알 수 없다.<sup>9)</sup> 또한 심리전 중에는 포로를 활용한 심리전도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실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의 목적은 6·25전쟁 당시에 북한이 추진한 심리전의 종류·방법·내용을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는 것이다. 첫째, 이 글은 북한이 추진한 심리전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를 적군와해 조직사업과 적군와해 선전

29),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247.

7) 김선호, 「6·25전쟁기 북한 심리전의 체계와 인적 자원」 『東方學志』 제192집 (2020), 175~206쪽.

8)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현실』 제51호 (2004); 김영희, 「한국전쟁 기간 뼈라의 설득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보』 제52권 1호 (2008); 이윤규, 「6·25전쟁과 심리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1호 (2010); 이임하, 『적을 뼈라로 물어라: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 (서울: 철수와영희, 2012); 김은정, 「뼈라와 문학의 공통감각: 한국전쟁기 북한 뼈라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9호 (2013).

9) 김선호, 「6·25전쟁기 북한 심리전의 체계와 인적 자원」, 197~200쪽.

선동사업으로 구분해서 분석할 것이다. 둘째, 이 글은 적군와해 조직사업의 핵심인 포로를 통한 심리전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의 포로 정책과 심리전의 관계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포로를 통한 심리전의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셋째, 이 글은 적군와해 선전선동사업을 빼라사업과 함화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의 체계·방법·대상을 해명할 것이다. 이상의 주제를 통해 북한의 심리전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적 특징을 추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노획문서(北韓鹵獲文書)<sup>10)</sup>다.

## II. 적군와해 조직사업과 포로를 통한 심리전

### 1. 북한의 포로정책과 심리전

북한의 적군와해사업은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적군와해 조직사업”과 “적군와해 선전선동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군와해 조직사업은 비밀리에 적진에 침투하거나 적군을 포로로 잡아서 적군을 와해시키는 특수전(特殊戰) 형태의 심리전이다. 이 사업은 포로사업, 특수공작원사업, 무장선전대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적군와해 선전선동사업은 전선에서 적군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 대적(對敵) 선전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며, 빼라사업과 함화사업으로 구분된다. 인민군뿐만 아니라 중국군도 6·25 전쟁 당시에 적군와해사업을 추진했다. “적군공작(敵軍工作)”으로 명명

<sup>10)</sup>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북한노획문서는 국내의 여러 기관에 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된 중국군의 적군와해사업도 ‘포로(俘虜)정책, 함화(喊話)사업, 선전물(宣傳品)사업’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되었다.<sup>11)</sup> 즉 이 3대 사업은 공산군이 유엔군에 대항해 펼친 공통적인 심리전 전술이었다.

먼저 북한은 특수전을 통해 적의 인적 자원을 직접 탈취하는 심리전을 추진했다. 인민군 총정치국은 1951년에 제109호 지령을 하달해 적군에 침투시키기 위해 각 부대마다 “특수공작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다. 제5군단의 경우, 예하의 각 사단별로 1개월에 3명 이상씩 특수공작원을 추천해서 군단으로 보내도록 규정했다. 또한 총정치국은 첩보활동을 통해 전선에서 직접 대치하고 있는 적군의 지휘관을 투항시키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군단 정치부에서 하달했다. 제5군단은 1951년 9월 8일에 각 사단마다 대치하고 있는 적군 지휘관 중에서 대대장급 2명, 중대장급 3명, 소대장급 3명과 비밀리에 연계를 형성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달리 무장선전대사업은 단독으로 무장한 선전대가 적의 중심에 침투해 뼈라를 살포하고 구호판을 게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무장선전대는 별도로 “군사정치 특수훈련”을 받았으며, 무장선전대의 침투는 전투부대가 전투를 진행할 때 이루어졌다.<sup>12)</sup> 이상의 적군와해 조직사업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적군와해 조직사업 중 포로사업은 적군에게 인민군의 포로정책을 선전하고, 사로잡거나 투항한 포로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심리전 전술이다. 인민군 적군와해사업의 모델은 중국공산당군대의 적군와해사업이었던

11) 6·25전쟁기 중국군의 심리전은 아직까지 연구성과가 제출되지 않았다. 中國人民志願軍 第十九兵團 政治部敵工部 編, 『聯隊敵軍工作課本』 (평양: 中國人民志願軍 第十九兵團, 1951.9.17);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이하 한림대) 편, 『한국전쟁기 뼈라』 (춘천: 한림대학교, 2000), 791~795쪽.

12) 제327군부대 정치부장 김강, 『지령: 적군와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평양: 제327군부대 정치부, 1951.9.8),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249.

데, 이 사업이 고안된 근본적 이유는 바로 포로에 대한 정책 때문이었다. 중국공산당군대는 초기의 대(對)일본군 심리전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일본군이 포로의 대우에 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중국공산당군대는 전체 장병에게 「포로취급에 관한 전지수칙(戰地守則)」을 하달해서 포로에 대한 상해·모욕을 금지하고, 환자보호·귀환보장·직업알선 등을 지시했다.<sup>13)</sup> 특히 마오쩌둥(毛澤東)은 홍군(紅軍)을 확장하기 위해 포로를 관대하게 대하고 포로를 통합시키는 정책을 제기했고, 이 같은 정책은 적군외해사업으로 귀결되었다.<sup>14)</sup>

따라서 포로사업은 적군외해사업의 핵심이었다. 이 사업은 그 내용에 따라 인민군의 포로정책에 대한 선전선동사업과 포로행정사업으로 구분된다. 포로에 대한 선전선동사업은 뼈라 심리전과 함화 심리전을 통해 추진되었다. 포로행정사업은 각 부대에서 획득한 포로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억류된 포로를 사망케 하거나 포로를 폭행·협박·모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sup>15)</sup> 북한 정부는 7월 13일에 외무상 박헌영(朴憲永)의 명의로 “조선인민군이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제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제네바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sup>16)</sup> 또한 북한 헌법의 ‘군사상 범죄’에는 포로병을 특히 잔혹하게 대우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sup>17)</sup>

13) 김기도 편저, 『정치선전과 심리전략』 (서울: 나남, 1989), 175~177쪽.

14) 李健一, 『中國共產黨의 人民軍隊 統制論』 (서울: 다다미디어, 1998), 172~173쪽.

15)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서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0), 64~66쪽.

16) 김민서·박지현, 「현행 1949년 제네바협약과 대한민국·6·25전쟁 포로문제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제29호 (2009), 78쪽.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군사상 범죄」, 항공사단 검찰소, 『심사원사업지

북한은 이미 전쟁 전에 전투에서 사로잡은 포로에 대한 취급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38경비 제3여단의 1950년 6월 21일자 『정찰지령 No.8』이다.

각부대의 전투과정에서 체포한 포로들은 그의 량에 의하여 장교, 하사관, 병사별로 구분하여 취급하되 체포한 포로 중에서 당면한 적정을 알기 위하여 장교 또는 하사관들에서 간단한 심문을 하며 전체포로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포로등록 통계양식에 의거하여 나에게 보고할 것. 포로등록 및 후송은 련대 및 대대의 비전투성원으로 구성할 것이며 포로후송은 두락산·상직동 방향은 제2포로수용소·가천인민학교, 까치산 연안 방면 포로 및 투항자 후송은 제1포로수용소 및 월록인민학교로 후송할 것.<sup>18)</sup>

북한은 체포하거나 투항한 포로를 장교·하사관·병사별로 구분하고, 그중에 특히 장교·하사관을 심문해서 적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계획했다. 이와 함께 이미 개전하기 전에 여단·사단별로 포로수용소를 설치해서 후송하려는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또한 전선사령부는 개전 직후인 7월에 모든 전투부대에 ‘적군포로취급’에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 전선사령관 김책(金策)은 이 명령에서 투항하는 적을 반드시 포로로 잡으라고 지시하고, 포로로 잡을 수 있는 적을 함부로 사살하는 행위를 엄금했다. 또한 부상당한 포로는 반드시 치료하라고 지시하고, 포로를 모욕하거나 포로의 개인물품을 탈취하는 행위도 엄금했다.<sup>19)</sup>

그러나 이 같은 포로취급규정은 전투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

도서』(평양: 항공사단 검찰소, 1950),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14.

18) 참모장 태주혁, 『정찰지령 No.8』(평양: 제3157군부대 참모부, 1950.6.21),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0174.

19) 문화부대 문화부대장, 「지령: 적군와해공작 및 포로취급에 대하여(1950.7.26)」, 고려서림 편, 『北韓解放直後極秘資料』 6권 (서울: 고려서림, 1998), 33쪽.



다. 제1군단 문화부사령관은 1950년 8월 15일에 「포로 살상 엄금에 대한 지령」을 하달했다. 그리고 제235군부대 문화부대장 최봉철은 제1군단의 지령에 따라 8월 16일 예하부대에 「포로살상 엄금에 대하여」라는 지령을 하달했다. 그가 이 지령을 하달한 이유는 “개별적인 아군부대 군무자들”이 투항하는 적군을 계속 살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화부대장은 예하부대 전체 문화일꾼들에게 투항하는 적을 살상하는 행위를 엄금하고 포로를 친절히 대하도록 전투원들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sup>20)</sup>

인민군이 투항을 유도하는 포로정책을 가지고 있던 이유는 미군과 국군의 병사들에 대한 계급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제655군부대 정치부는 적군의 출신성분을 분석한 결과, 국군의 95%가 노동자·빈농 등 기본계급출신이며, 미군의 75% 이상이 기본계급출신이라고 파악했다. 정치부는 국군의 병사들이 전쟁의 목적을 모르고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미군 병사들도 기만당해서 한반도에 투입되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적군과 해 선전선동사업을 통해 인민군의 포로정책과 정의의 전쟁 관점을 적군 병사들에게 침투시킨다면 충분히 투항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sup>21)</sup> 특히 인민군은 국군 병사들을 ‘근로인민의 아들로서 조선인민의 아들’이자, 미국과 이승만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로 이용당하고 있는 고용병으로 보았다. 따라서 국군 병사들에게 적공사업을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그들을 투항시키는 것은 “암흑세계로부터 태양있는 세상으로 구원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sup>22)</sup>

20) 제235군부대 문화부대장 최봉철, 『지령: 포로살상 엄금에 대하여』 (평양: 제235군부대 문화부, 1950.8.16),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0790.

21) 제655군부대 정치부, 『부대전투원들의 적군와해사업을 기일층 강화할데 대하여』 (평양: 제655군부대 정치부, 1951.9),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107. 다음부터 『적군와해사업 강화』로 축약한다.

22) 「적공조장 및 적공조원의 의무」, 사단 정치부장, 『초급적공와해사업 진행계획표』 (평양: 사단 정치부, 1951.7.4).

이와 함께 인민군이 투항을 유도하는 포로정책을 적군에게 적극적으로 선전한 것은 미군과 국군의 심리전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총정치국 적군와해처는 미군과 국군이 자신의 군인들에게 “빨갱이는 포로를 눈 빼고 코 베고 손가락을 끊어 죽인다”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군의 군인들이 인민군에 투항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적군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적군 군인들에게 인민군에 투항해도 죽지 않으며, 오히려 우대받는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선전할 필요가 있었다. 적군와해처는 인민군의 포로정책을 적군에 널리 침투시키는 것이 적군와해공작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인민군이 포로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적군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군와해공작 담당자들이 인민군 군인들에게 관대한 포로정책을 널리 침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3)</sup>

한편 인민군은 적군의 투항을 유도하는 포로정책뿐만 아니라 전투현장에서 적군을 직접 사로잡는 포로획득작전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인민군 제7군단 제37사단은 전투현장에 “특수정찰조”를 파견했는데, 이 특수정찰조의 임무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장교나 병사를 포로로 잡아오는 것이었다. 1953년 2월에 강원도에 배치된 인민군 제37사단 제76연대에서 연대선동원으로 활동한 최하종의 구술을 살펴보자.

그때 우리 사단이 72연대하고 바꿨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함화공작을 하면서도 “72연대 용사들이여!” 우리는 76연대인데 한 달 반 동안 72연대를 불러대. 그리고 특수정찰조를 내보냅니다. 정찰이라는 것은 정보를 얻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찰대대, 중대가 움직이는 것은 가서 혀를 잡아오는 것이거든요. 적의 장교를 잡아오면 더욱 좋고, 사병이라도 잡아오면, 잡아온 포로를 “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부대 배치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23)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적군와해처, 「적군와해공작에 대하여(1950.12)」, 한림대편, 『한국전쟁기 뼈라』, 812쪽.

거 다 물어봐서 실토를 하면 그거 가지고 작전을 짜거든요. 그런데 국군은 잡아와도 하사관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미군은 하사관도 아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 연대 정찰소대에서 한 조를 내보냈는데, 예를 들면, 일곱을 내보냈는데 여섯이 돌아왔어요. 한 놈이 돌아오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래 조 마조마 했는데, 웬걸 그 뒷날부터 “76연대 용사들이여” 하고 나오는 거라.<sup>24)</sup>

제37사단은 전투현장에 정찰대대·정찰중대·정찰소대별로 특수정찰조를 파견해서 포로로 잡은 장교·사병으로부터 부대배치 등 적군에 대한 정보를 청취해서 이를 바탕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인민군은 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미군포로도 직접 조사했다. 반면에 특수정찰조로 파견된 조원 중에 일부가 국군의 포로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포로가 된 뒤에 국군부대에 바로 배치되어 반대로 자신이 소속되었던 인민군부대에 대한 심리전 수행요원으로 활동했다.

인민군은 적군에게 자신들의 포로정책을 선전하는 도구로서 주로 뼈라와 함화를 활용했다. 먼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와 공동 명의로 적군 투항자용 『안전보증서：安全通行證』을 제작해 뼈라로 살포했다.

인민군은 뼈라에 포로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한다는 김일성(金日成)의 명령을 직접 게재함으로써 적군의 투항자를 안심시키는 선전 전술을 펼쳤다. 또한 최고사령부는 『안전보증서』에 포로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의 생활상을 사진으로 찍어 첨부했다. 사진에는 ‘모 포로수용소에서 유쾌하게 1953년을 맞이하는 전 국방군 장병들. 그들은 풍족하게 공급품을

24) 국사편찬위원회, 『비전향장기수구술1: 최하중』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208~209쪽.

25) 조선인민군사령부·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 『안전보증서 - 安全通行證』 (평양: 조선인민군사령부·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 1953), 3쪽; 6쪽,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7162.

〈그림 1〉 안전보증서<sup>25)</sup>



받고, 매주일 한 번씩 시원히 목욕도 하며, 몸이 아프면 곧 의사의 친절 한 치료를 받는다'라는 선전문구를 써넣었다.<sup>26)</sup>

또한 인민군은 함화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포로정책을 적극적으로 선 전했다. 총정치국은 인민군에서 공통으로 활용한 함화집에 자신들이 포 로를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포함시켰다. 국문함화집에는 “인민 군의 포위망은 바짝바짝 쏘아든다. 그러나 당신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투항하면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라는 함화를 수록했고, 영어함화집에는 “We'll never kill you, you will be escorted safely to the rear”라는 함화를 수록했다.<sup>27)</sup>

## 2. 포로를 통한 심리전의 수행

인민군은 개전 직후에 유엔군처럼 포로수용소를 설치했다. 전선사령

26) 조선인민군사령부·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 『안전보증서 - 安全通行證』.

27) 조선인민군, 『함화집』 (평양: 조선인민군, 1950.8), 3쪽, NARA, RG 242, SA 2010, Box 1, Item 100;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영어함화집』 (평양: 총정치국, 1951.12), 33쪽, NARA, RG 242, SA 2013, Box 2, Item 80.

부는 7월 20일에 「포로수용소 사업조직 및 질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서 전투부대에 하달했다. 포로수용소는 군단과 사단에 설치되었으며, 연대와 독립대대가 포로를 잡았을 경우에는 사단에 보내도록 규정되었다.<sup>28)</sup> 전선에서 국군 헌병과 한국 경찰을 포로로 잡았을 때는 반드시 사단 정치보위부로 넘기도록 규정되었다.<sup>29)</sup> 또한 국군·미군 포로들이 입고 있는 제복·모자·신발과, 소지하고 있던 서적·사진·훈장 등은 즉시 군단 정치부로 이관했다.<sup>30)</sup> 미군 포로는 국군 포로와 달리 사단이 아니라 모두 군단으로 이송되었다. 대표적으로 제1군단 정찰부는 1950년 9월 6일에 예하부대로부터 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의 포로병 57명을 접수했다.<sup>31)</sup>

그런데 1950년 12월에 조·중연합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포로관리체계도 변경되었다. 연합사 창설 초기에는 인민군이 미군 등 외국군포로와 국군포로를 모두 관리했으나, 1951년 4월 1일부터 중국군이 외국군포로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국군포로도 일부 관리했다. 지원군 정치부는 4개 포로수용소, 2개 포로대대, ‘지원군정치부포로관리훈련처(志願軍軍政治部俘虜管理訓練處)’를 설치하고, 2개 포로수용소에는 외국군포로를, 2개 포로수용소에는 국군포로를 수용해 관리했다. 그러나 그 후 저우언라이(周恩來)와 김일성의 합의에 따라 외국군포로에 대한 관리와 석방공작은 중국군이, 국군포로에 대한 관리와 석방공작은 인민군이 각각 담당했

28) 조선인민군전선총사령부 총사령관 김책, 총참모장 강건, 『명령 제84호: 적군 포로 취급에 대하여』 (평양: 조선인민군전선총사령부, 1950.7.20).

29) 문화부대 문화부대장, 「지령: 적군와해공작 및 포로취급에 대하여(1950.7.26)」, 고려서림 편, 『北韓解放直後極秘資料』, 33쪽.

30) 제825군부대 정치부 선동원 김병기, 『근위六師 정치부장 동지 앞』 (평양: 제825군부대 정치부, 1951.9.4),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105.

31) 제1집단군 정찰부 박병남, 『포로병 접수증』 (평양: 제1집단군 정찰부, 1950.9.6),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0624.

다. 이 합의 이전에도 국군포로는 대부분 인민군에 인계되었다.<sup>32)</sup>

1951년 11월 당시 북한지역에는 30~35개의 포로수용소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sup>33)</sup>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미군과 국군을 포함해 38,500명의 유엔군 포로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sup>34)</sup> 또한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5월 22일까지 “미영 및 기 외국침략군과 국방군” 중에서 339,269명을 살상하고, 85,428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주장했다.<sup>35)</sup> 이 중에서 외국군포로는 인민군이 관리하다가 1951년 4월부터 중국군이 관리했고, 국군포로는 전쟁 기간 동안 대부분 인민군이 관리했다.

인민군에서 포로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적공조직이 맡았다. 적공조장과 적공조원의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인민군의 포로정책을 정확히 인식할 것, 포로들을 친절히 대할 것, 전투원들이 포로를 비웃거나 인권을 모욕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교육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sup>36)</sup> 각급 부대의 정치부대장은 적공조원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조직해 인민군의 포로정책을 교육했다.<sup>37)</sup>

32) 북한은 ‘지원군정치부포로관리훈련처’를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전쟁 포로관리처’라고 명명했다. 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55~57쪽. 공산군의 포로정책은 다음 연구를 참고 바람. 조성훈, 「한국전쟁 중 공산측의 유엔군 포로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군현대사 연구』 제6집 (1997), 217~266쪽.

33) 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63쪽.

34) 「조국전선중앙위원회에서 진술한 박헌영 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51년 3월 25일.

35) 조선인민군총사령부,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역도들의 전쟁 도발1주년에 재하여 “국방군” 전체 장병들에게 격함』 (평양: 조선인민군총사령부, 1951),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 205409.

36) 「적공조장 및 적공조원의 의무」, 사단 정치부장, 『초급적공와해사업 진행계획표』.

37) 제3세대 정치부대장 로형중, 『적공사업 총화보고서』 (평양: 제3세대 정치부,

총정치국 적군와해처는 적군와해공작 조직사업 중에서 포로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했다. 포로에 대한 조사와 분류는 포로를 획득한 각 군단과 사단에서 담당했다. 군단과 사단은 포로를 즉시 조사해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자, 인민군에 입대시킬 자, 비교적 장기간 동안 교육시켜 적공사업에 이용할 자로 분류했다. 인민군은 이렇게 분류한 모든 포로를 심리전에 활용했다. 첫째, 적군와해처는 귀가시킬 포로에게 인민군이 포로를 죽이지 않고 소원대로 귀가시킨다는 사실과 귀가 후에 다시 국군에 입대해도 투항하면 살려준다는 사실을 교육함으로써 인민군의 포로정책을 적군에게 선전하는 데 역이용했다.

둘째, 적군와해처는 장교·‘반동분자’와 친척·친우관계가 있는 포로, 적군 병사들 중에 동향 친우가 많은 포로, 적군 병사들에게 신망이 높은 포로를 특별히 선발해서 분리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특별 대우와 특별 교육을 실시한 후에 돌려보냄으로써 적군을 내부에서 와해시키는 공작을 추진했다. 이 포로들은 “적후방 공작원”으로 명명되었다. 포로귀환공작은 대부분 포로수용소에서 직접 추진했다. 그러나 군단과 사단에서도 공작에 적합한 포로를 발견하면 적공지도원이 정치부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적후방 공작원으로 파견했다. 또한 군단과 사단의 적공지도원들은 자신의 부대가 진격하는 지역에서 포로 이외에 적 후방에 침투시켜서 적 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조직사업도 동시에 진행했다.<sup>38)</sup>

제네바협약에는 억류국이 포로를 수용소에 집결시키고, 이들을 전투 지대의 포화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보내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sup>39)</sup> 그러나 인민군은 제네바협약을 위반해 포로를 인민군에 편입시키

1951.6.29),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248.

38)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적군와해처, 「적군와해공작에 대하여(1950.12)」, 한림대 편, 『한국전쟁기 뼈라』, 812쪽.

거나 적후방 공작원으로 교육시켜서 적군에 다시 침투시켰다.

인민군은 포로를 획득한 직후에 이들을 심문해서 중요한 정보를 취득했다. 인민군은 이미 1950년에 『포로심문서』를 제작해 각 전투부대에 지급했다. 포로들에게 취득한 정보는 모두 26개로, 포로가 된 지점, 부대번호·야전우편번호, 부대의 전투경로·조직·전투성원·무기, 간부의 성명·경력·지휘능력, 방어축성물·포·전차의 배치 현황, 신무기 보유 여부, 예비대의 전력, 지휘부의 임무·계획, 탄약·중유 보유량, 통신결속소·전투지휘소의 위치와 상태, 화학병·공병·기재·식량의 상태, 정신상태와 정치상태(병사 및 장교들의 일체동향) 등이다. 대표적으로 한 전투부대에서 미군 제2사단 제9연대 제1대대 제3중대 이등병 “아로킨즈”를 포로로 잡아 심문했다. 그 결과 제3중대의 중대원이 105명이고, 소대장과 중대장은 “체슬래”와 “복캐리”이며, M1보총과 박격포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sup>40)</sup>

인민군은 『포로심문서』를 통해 적군의 전투력과 전투서열을 파악해 이를 공격전과 방어전에 활용했다. 이와 함께 장교와 병사들의 구성, 정치의식, 심리상태를 파악해 이를 적군외해사업에 활용했다. 예를 들어, 제655군부대는 1951년 9월 초순에 국군 제5사단 제35연대 소속 병사 김희옥을 포로로 잡았다. 제655군부대 정치부는 그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국군 제5사단 제35연대 부대원의 80%가 최근에 입대한 신입대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포로의 진술에 따르면, 부대원들은 훈련을 거의 받지 못해 총소리만 나면 도피처를 찾고 대항해서 싸울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식사 때나 밤에 병사끼리 모이면 주로 고향이 그리운다는 이야기와 전쟁 전의 평화로운 시대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나누며, 정전회담이

39)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67쪽.

40) 조선인민군, 『포로심문서』 (평양: 조선인민군, 1950),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0568.



빨리 타결되면 귀가할 수 있으므로 개성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길 희망하고 있었다.<sup>41)</sup>

포로들의 진술은 적공 담당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적공담당자의 보고는 인민군이 심리전을 통해 포착하려 한 적군 내부의 심리상태를 보여준다. 제655군부대 정치부는 같은 지령에서 적군이 개전 당시부터 15개월 동안 무의미한 전쟁을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적군 전체에 “염전사상(厭戰思想)”이 농후해지고, “가정관념(家庭觀念)”과 “보명사상(保命思想)”이 강력히 침투했다고 분석했다.<sup>42)</sup> 인민군은 적군의 전투력에서 무기와 장비의 우수함이 아니라 적군의 정신력과 심리상태를 전투력 평가의 핵심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인민군은 국군 포로를 포로수용소에 격리시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적군을 와해시키고 아군의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활용했다. 이들은 국군 포로를 인민군 부대에 편입시킨 후에 이들을 “해방전사(解放戰士)”라고 불렀고, 이 사업을 “포로석방사업”이라고 명명했다. ‘해방전사’는 각 중대별로 정치부중대장이 책임지고 관리했으며, 초급 선전원들이 이들을 교육했다. 또한 각 부대의 행정일꾼들이 ‘해방전사’에게 인민군의 특징과 성격, 각종 무기 사용법, 전투동작을 교육했다. 인민군은 국군 포로를 ‘해방전사’라는 이름을 붙여 부대에 편입시켰지만, 이들은 기존의 인민군 전사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했다. 인민군은 적군와해사업 월말보고서에서 ‘해방전사’를 여전히 “부대내포로”라고 기재했다.<sup>43)</sup>

인민군은 포로석방사업, 즉 국군 포로를 인민군에 편입시키는 사업을 뼈라사업, 함화사업과 함께 적군와해사업의 3대 사업 중 하나로 취급했다. 이에 따라 전투부대는 상부에 적군와해사업을 보고할 때 부대에 있

41) 제655군부대 정치부, 『적군와해사업 강화』.

42) 위의 글.

43) 제2대대 선동원 허경룡, 『적공사업에 대한 월말보고』.

는 ‘해방전사’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해방전사’에 관한 정보는 부대에 있는 ‘해방전사’의 총인원과 그들의 직위별 통계, ‘해방전사’들의 모범적 전투사례와 그들이 받은 표창의 종류·인원이었다.<sup>44)</sup>

가령 어느 제3대대에는 1951년 6월 29일 당시에 총 14명의 ‘해방전사’가 있었다. 이들은 전투에 투입되어 공훈을 받았는데, 그 공훈과 인원은 군공메달 3명, 2급 영예훈장 1명, 대대장 감사 1명이었다. 예컨대, 국군 병사 윤모(某)는 1951년 1월에 인민군에 포로로 잡혔다. 그는 2월에 평안남도 영원군에서 제3대대 제7중대 ‘해방전사’로 편입되었다. 윤모는 편입 직후에 인민군이 자동차도 없이 도보로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부정적 견해를 표출했다. 그러자 반총소대 적공조원 리주영이 그를 말아 해설선전사업과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윤모는 1951년 5월 5일 한계령 전투에서 적군을 사살해 2급 영예훈장과 군공메달을 받았다. 또한 제7중대 공급소대 전사 김모(某)는 1951년 3월 20일에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에서 포로가 되었는데, 공급소대에 배치된 후에 군공메달을 수여받았다.<sup>45)</sup> 제2대대에도 1951년 7월 29일 당시에 총 14명의 ‘해방전사’가 있었으며, 한 명은 하사관 계급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제2대대 선동원은 그들 중 9명을 공훈자로 선정해 상신했으며, 1명에게는 2급 영예훈장이 내려졌다.<sup>46)</sup>

북한은 포로를 심리전에 투입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노렸다. 첫째, 적군의 내부상황과 심리상태를 가장 잘 아는 포로는 최적의 적공 요원이었으므로, 이들을 원래 소속되었던 부대가 주둔한 인근에 투입함으로써

44) 제655군부대 정치부, 『적공사업 및 해방전사에 대한 몇 가지 보고 제출에 관하여』 (평양: 제655군부대 정치부, 1951.6.22),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246. 다음부터 『적공사업 및 해방전사 보고』로 축약한다.

45) 제3대대 정치부대장 로형중, 『적공사업 총화보고서』.

46) 제2대대 선동원 허경룡, 『적공사업에 대한 월말보고』.

적군와해사업을 극대화한 것이다. 둘째, 심리전에 투입된 포로가 전투에서 공훈을 세울 경우, 이들은 미군·국군에게 직접적으로 적대행위를 했으므로 인민군을 탈출해 원 부대로 귀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즉 북한은 포로를 심리전의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인민군에 동화시키고 적군에 대한 정치사상적 우위를 증명하고자 했다.

### Ⅲ. 적군와해 선전선동사업과 빼라·합화를 통한 심리전

#### 1. 적군와해 빼라사업의 체계와 방법

적군와해 선전선동사업은 적군와해 조직사업과 달리 전선에서 적군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 대적 선전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적군와해사업으로 알려진 인민군의 심리전은 주로 적군와해 선전선동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빼라사업과 합화사업으로 구분되었다. 빼라사업은 적군에 빼라를 살포해 투항을 유도하는 선전선동이고, 합화사업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근거리에서 적군에게 선전구호를 소리쳐서 투항을 유도하는 선전선동이다. 이와 함께 인민군은 적군와해 선전선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전선에서 선전방송을 진행했다. 각 군단과 사단은 자체적으로 트럭을 개조한 방송차를 구비했고, 적 진지 근접지역에 배치해서 빼라와 합화를 방송하거나 포로들을 등장시켜 방송했다.<sup>47)</sup>

47)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적군와해처, 「조선인민군 각 군단사단·여단 적군와해공작

빼라와 합화를 통한 적군와해사업은 일반적으로 인민군과 중국군이 각각 별도로 추진했다. 중국군은 빼라의 경우 지원군 정치부에서 제작해 외국군·국군을 상대로 살포했으며,<sup>48)</sup> 합화의 경우 지원군 정치부, 군사령부, 사단 정치부 등에서 각각 책자를 제작해 활용했다.<sup>49)</sup> 합화와 달리 빼라는 인민군과 중국군이 공동으로 제작해서 뿌리기도 했다.<sup>50)</sup>

인민군이 적군을 와해시키기 위해 활용한 첫 번째 선전선동방식은 빼라다. 빼라의 어원은 전단(傳單)을 뜻하는 영어 단어 'bill'의 일본식 발음인 '비라(びら)'에서 유래했다.<sup>51)</sup> 이 같은 어원으로 인해 인민군도 적공사업 보고서에서 "비라"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했다.<sup>52)</sup> 노동당은 빼라를

지도원 동지 앞: 적군와해공작에 대하여(1950.12)』, 한림대 편, 『한국전쟁기 빼라』, 812쪽.

- 48)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 발, 『중국인민지원군은 포로를 관대하며 죽이지 않고』 (평양: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 1951),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5641;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Forces, 『Your Families Need You Back!』 (평양: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Forces, 1952),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3816.
- 49) 中國人民志願軍 政治部 編印, 『〈中英對照〉戰場喊話與簡單用語』 (평양: 中國人民志願軍 政治部, 1951),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5079; 中國人民志願軍 第六十四軍司令部 編印, 『英語學習手冊』 (평양: 中國人民志願軍, 1951.10.4),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5080; 中國人民志願軍 第一九一師政治部 編印, 『對美軍喊話口號』 (평양: 中國人民志願軍, 1951.3),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5080.
- 50)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누가 당신을 집에 돌아가 설을 못쉬게 하는가?』 (평양: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1951),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5380;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re You Really Fighting For Freedom?』 (평양: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1951),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871.
- 51) 이윤규, 「6·25전쟁과 심리전」, 132쪽.
- 52) "우리들의 비라"나 "국방군의 비라" 등을 사용했다. 3대대 정치부대장 로형중, 『적공사업 총화보고서』.

“대중 선동수단의 하나”라고 규정했으며, “당면한 정치적 문제의 해결에  
로 대중을 선동하는 내용을 담은 격문 등을 인쇄(또는 등사)한 것”이라고  
정의했다.<sup>53)</sup> 6·25전쟁 당시 빠라는 미군·국군·인민군·중국군이 펼친  
심리전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실제로 유엔군은 3년 동안 인민  
군·중국군·북한지역에 약 25억 장의 빠를 살포했다. 북한과 중국은  
유엔군과 국군을 향해 라디오 선전방송도 펼쳤지만, 전선에서 그들의 주  
된 심리전 도구는 빠라였다.<sup>54)</sup>

인민군은 적군에게 빠를 살포하는 심리전을 “빠라산포(散布)사업”  
또는 “적공빠라산포조직사업”이라고 불렀다. 인민군의 빠라는 일반적으  
로 총정치국 선전선동부에서 제작되어 각 부대로 하달되었다.<sup>55)</sup> 또한 각  
군단과 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빠를 제작해 적군에 살포했다. 군단과  
사단의 빠라는 군단·사단의 적공지도원들이 제작했으며, 군단·사단 정  
치부장의 비준을 받았다. 이 빠라가 총정치국의 빠라와 다른 점은 “시기  
적 성질을 가진 빠라”라는 점이다. 시기적 빠라란 포로들이 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 전우에게 알리는 포로들의 실명(實名)빠라, 대치해 있  
는 적군 장교의 비행(非行)이나 적군 병사들의 가장 큰 약점을 기술해  
선전하는 빠라 등을 뜻했다.<sup>56)</sup> 즉 군단과 사단의 빠라는 신속히 살포해  
야 효과적인 빠라와, 대치한 적군의 구체적인 내부정보와 심리상태가 실  
린 빠라였다.

53)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344쪽.

54)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빠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101쪽.

55)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의 조직체계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총정치국 선전선동부의 존재는 다음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선동부, 『〈강연자료〉 현대전쟁에 있어서의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평양: 총정치국 선전선동부, 1951), NARA, RG 242, SA 2012, Box 5, Item 37.

56)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적군와해처, 「적군와해공작에 대하여(1950.12)」, 한림대 편, 『한국전쟁기 빠라』, 812쪽.

제작된 뼈라는 인민군의 정치부계통을 통해 하급부대에 전달되었다. 즉 총정치국 선전선동부에서 제작된 뼈라는 군단 정치부 → 사단·여단 정치부 → 연대·대대 정치부 → 정치부중대장 → 소대선동원 → 적공조장 → 적공조원으로 전달되었다.

특히 인민군은 뼈라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 유엔군 포로들의 이름·소속·사진을 담은 실명뼈라를 제작해서 살포했다.

〈그림 2〉 유엔군 포로의 이름·소속·사진을 담은 실명뼈라<sup>57)</sup>



57) 조선인민군, 『“국군” 장교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평양: 조선인민군, 1952), 2쪽,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6224; 조선인민군, 『Whom are you fighting for?(당신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평양: 조선인민군, 1952), 2쪽,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7044.

왼쪽은 국군 제5사단 제35연대 제3대대 제9중대 장병 6명의 이름이 실린 뼈라다. 이 뼈라는 인민군의 무기가 우수하며 국군포로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른쪽은 미군 제24사단 제63야포대대 정보장교 찰스 바터(Charles T. Barter) 소령의 사진과 서명이 실린 뼈라다. 이 뼈라는 이 전쟁이 내전이 아니라 유엔의 ‘부당한’ 결의에 기초한 미국의 전쟁이며, 미군의 폭격이 민간인의 대규모 피해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인민군은 실명뼈라를 통해 국군에게는 포로 우대정책을, 미군에게는 전쟁의 부당성을 선전함으로써 이들의 투항을 유도했다.

전장에서 실제로 뼈라를 살포하는 작전은 각 중대의 정치부중대장과 그가 지휘하는 적공조직에 의해 수행되었다. 정치부중대장·중대선동원·소대선동원·적공조장은 적공조원들에게 뼈라를 살포할 시간과 장소 등을 교육하고 지시했다. 각 분대의 적공조원들은 개인마다 직접 뼈라를 휴대하고 전투에 나가서 현장에 살포했다. 뼈라는 공격 시에는 일반적으로 나뭇가지에 붙이거나 도로에 돌로 귀어놓았으며, 방어 시에는 방어 전면에 살포했다. ‘뼈라산포사업’이 완료되면 뼈라명, 살포 장소, 살포 수를 소대선동원과 정치부중대장에게 보고했다. 예를 들어, 어느 제2대대는 1951년 7월에 상급부대에서 받은 뼈라를 모두 살포했는데, 제2대대 선동원은 뼈라명, 살포 장소, 살포 수를 보고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산포사업을 책임진 각 정치부중대장과 선동원들이 전투과정에서 부상당하거나 전사했기 때문이었다.<sup>58)</sup>

또한 인민군은 뼈라산포사업에 적공조 이외에 다른 조직도 활용했다. 첫째, 전투부대의 습격조를 활용했다. 소속을 알 수 없는 제3대대는 1951년 6월에 적공뼈라산포조직사업을 수행했는데, 뼈라를 습격조원들

<sup>58)</sup> 제2대대 선동원 허경룡, 『적공사업에 대한 월말보고』.

에게 지급해서 적군 깊숙이 들어가 살포했다. 둘째, 점령지역의 주민들을 동원해 이들에게 뼈라를 주어 살포하기도 했다. 부대가 주둔지를 옮겨 다른 방어선으로 이동할 때는 원 주둔지에 뼈라를 살포했다.<sup>59)</sup>

인민군은 뼈라가 최대한 적군 병사들의 손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뼈라 살포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살포 방법을 세심히 연구했다. 일부 부대는 뼈라를 무조건 적후(敵後)에 살포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미군이 배치된 곳에 국군용 뼈라를 살포하거나 국군이 배치된 곳에 미군용 뼈라를 살포하기도 했다. 얼마 후 인민군은 국군 측에서 병사들이 인민군의 뼈라를 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미군 측에서는 뼈라를 보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들은 뼈라에 대한 미군과 국군의 대응을 분석한 후, 국군용 뼈라는 병사들이 비밀리에 가져갈 수 있도록 숙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락의 대문·문·벽·변소에 붙여놓고, 국군의 전호 옆과 국군이 통행하는 길목의 큰나무나 바위에 붙이라고 지시했다. 이와 달리 미군용 뼈라는 그들이 통과하는 길에 공개적으로 살포하라고 지시했다.<sup>60)</sup>

인민군은 뼈라를 살포하는 것으로 뼈라사업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포된 뼈라에 대한 적군의 반응도 치밀하게 확인했다. 1951년 6월 29일에 제3대대 정치부대장은 예하 적공조직을 통해 “적공뼈라에 대한 적군의 반영”을 보고받았다. 5월 20일에 방대산에서 사로잡은 국군 제2사단 제27연대 제3대대 통신참모의 진술에 따르면, 국군 내부에서는 인민군의 뼈라를 보는 것을 엄금하고 있지만, 일반 병사들은 숨어서 뼈라를 보고 있었다. 통신참모도 “두 아들”이라는 인민군의 뼈라를 보았는데, 병사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이 실려 있다고 진술했다. 반면에 미군과 국군

59) 제3대대 정치부대장 로형중, 『적공사업 총화보고서』.

60) 제655군부대 정치부, 『적군와해사업 강화』.



의 뼈라는 물질적으로 회유하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고 평가했다.<sup>61)</sup>

인민군은 유엔군이 추진한 뼈라 심리전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1951년 9월 당시 제6사단의 각 전투부대는 용지난에 봉착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유엔군이 살포한 뼈라를 습득해서 필기용지로 재활용하거나 수첩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제6사단 정치부는 유엔군 뼈라를 재활용하는 행위가 적군의 인민군 와해공작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부장은 앞으로 각 병사들마다 적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라고 강조하고, 아군의 뼈라는 소중하게 취급하고 적군의 뼈라는 발견한 즉시 부대에서 수집해 소각하라고 지시했다.<sup>62)</sup>

## 2. 적군와해 함화사업의 방법과 대상

인민군이 적군을 와해시키기 위해 활용한 두 번째 선전선동방식은 함화다. 뼈라가 적군을 와해시키기 위한 선전내용을 전단의 형태로 살포하는 심리전 전술이라면, 함화는 적군을 와해시키기 위한 선전내용을 목소리로 전달하는 심리전 전술이다. 따라서 함화는 적군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에서 실시되었으며, 군인들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방식으로 적군에게 잘 들릴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함화를 외쳤다.<sup>63)</sup>

인민군은 심리전의 전술로서 함화를 “적에 대한 거대한 폭탄”으로 규정했다.<sup>64)</sup> 그리고 총정치국 적군와해처의 규정에 따르면, 함화는 “적에 대한 포탄의 일종이며 많은 적을 투항시킬 수 있는 유력한 무기”였다.<sup>65)</sup>

61) 제3대대 정치부대장 로형중, 『적공사업 총화보고서』.

62) 제655군부대 정치부, 『적군와해사업 강화』.

63) 제327군부대 정치부장 김강, 『지령: 적군와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64) 「함화집을 보내며」, 조선인민군, 『함화집』, 1쪽.

인민군은 함화를 일종의 포탄이자 무기로 인식했기 때문에, 함화를 실행할 때도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묘준”이라고 강조했다. 함화는 전투상황에 따라 적을 포위했을 때, 적을 추격할 때, 방어할 때마다 각각 다른 내용으로 실시했다. 함화는 적에게 아군의 화력을 집중했다가, 전체 부대가 화력을 중지한 상태에서 전체 중대와 소대 단위로 집단적으로 외쳤다. 인민군은 심리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화를 적에게 위협적인 함화, 적의 부정의(不正義) 전쟁 성격을 폭로하는 함화, 고향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함화로 구분해서 실행했다.<sup>65)</sup>

인민군부대의 정치부는 함화를 실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적합하게 함화를 골라서 부를 것, 함화 시 욕설을 하지 말고 친절과 성의를 다할 것, 함화 시 적군의 공격에 주의할 것, 표준어를 사용하고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연습할 것, 중대·소대 단위로 집단적으로 함화를 부를 것 등이다. 이 같은 원칙은 실제 전투에서 수행한 함화 심리전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제6사단 제15연대 제2대대는 1951년 3월 제4단계 전투 시 적군의 욕설에 욕설로 대응하지 않고 “친절한 함화”로 대응해 10명을 포로로 잡았다. 반대로 제1연대 공병소대 분대장은 제5단계 1차 고사리전투에서 포위된 적을 향해 일어서서 함화를 외치다가 총에 맞아 전사했다.<sup>67)</sup>

총정치국 적군와해처는 함화를 수행하는 주체를 둘로 구분했는데, 그것은 인민군 병사들로 조직된 “함화조”와 적군 포로로 조직된 함화조다. 적군와해처는 전선에 배치된 인민군뿐만 아니라 적군의 포로를 그들의 원 소속부대가 있는 전선에 배치해서 소속부대를 향해 함화를 실시하는 전술을 구사했다.<sup>68)</sup>

65)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영어함화집』, 15쪽.

66) 제655군부대 정치부, 『적군와해사업 강화』.

67) 위의 글.

그런데 인민군은 뼈라와 달리 합화를 적공조직에 전담시켜 실시하지 않았다.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모든 부대는 공격과 방어 때마다 항상 대적 합화를 실시했다. 합화사업에서 적공조장과 적공조원의 임무는 본인들이 일상적으로 합화를 연습하고, 이를 전체 부대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었다.<sup>69)</sup> 합화에 활용할 문장은 짧고 심정(心情)을 울리는 단어로 작성되었다. 가령 “당신들은 2중 3중으로 포위되었다. 목숨을 아끼는 동무들이여! 손을 들고 넘어오라!!” 등과 같다.<sup>70)</sup> 합화는 실전에서 전황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르게 활용했는데, 주로 적군이 포위되어 있을 때와 인민군의 전황이 우세할 때 추진되었다. 또한 합화는 모든 전투부대에서 매일 실시되었다. 어느 제3대대의 경우, 1951년 6월 동안 총 748회의 합화를 수행했다.<sup>71)</sup> 이는 하루에 25회꼴로 합화를 진행한 것이다.

인민군의 합화는 그 언어에 따라 “국문합화”와 “영문합화(영어합화)”로 구분되었다.<sup>72)</sup> 국문합화는 국군을 상대로 펼치는 심리전이며, 영문합화는 미군 등 외국군을 상대로 펼치는 심리전이었다. 인민군은 각 전투부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화집』과 『영어합화집』을 제작했다. 국문합화집은 1950년 8월에 8쪽으로 발행되었다. 합화집에는 국군 사병 상대용 합화 20개, 국군 장교 상대용 합화 5개가 수록되었다. 사병 상대용 합화는 주로 개인의 투항을 유도하는 내용이었고, 장교 상대용 합화는 부하를 인솔해 투항할 것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sup>73)</sup>

68)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적군와해처, 「적군와해공작에 대하여(1950.12)」, 한림대편, 『한국전쟁기 뼈라』, 812쪽.

69) 사단 정치부장, 「적공조장 및 적공조원의 의무」 『초급적공와해사업 진행계획표』.

70) 제2대대 선동원 허경룡, 『적공사업에 대한 월말보고』.

71) 제3대대 정치부대장 로형중, 『적공사업 총화보고서』.

72) 제655군부대 정치부 적공지도원 대리 고재선, 『482군부대 정치부 적공지도원 동지 앞』 (평양: 제655군부대 정치부, 1951.9.21),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104.

인민군뿐만 아니라 중국군도 조선어합화와 영어합화를 활용해 심리전을 전개했다. 중국군도 합화집을 제작해서 각 부대에 지급했는데, 인민군과 달리 국문합화와 영어합화를 한 개 책자에 함께 수록했다. 중국군 병단(兵團) 정치부는 1952년 10월에 연대교재(聯隊教材)로 『합화수책(喊話手冊)』을 제작해서 예하부대에 지급했다. 이 책자는 병단 전체의 '적군 와해합화(瓦敵喊話)'를 통일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 내용은 합화 시 사용할 영어, 적군 투항 시 사용할 영어, 전장용 조선어합화구호로 구성되었다. 병단 정치부는 전사들이 편리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번역했으므로 통역원들이 합화를 고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일반 전사는 합화용 영어와 조선어합화를 먼저 학습하고, 경찰부대·경위부대는 3종의 합화를 동시에 학습하라고 지시했다.<sup>74)</sup>

이와 함께 중국군 병단의 적공부(敵工部)는 '연대적공소조용(聯隊敵工小組用)' 『합화수책』을 제작해서 지급했다. 중국군은 이 합화수책에서 적공소조가 평상시에 군인들에게 관대한 포로정책과 적공공작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75)</sup>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 정치부'는 군인들이 스스로 영어합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중영대조(中英對照)〉 전장합화와 간단용어(戰場喊話與簡單用語)』와 『전장합화용어(戰場喊話用語)』를 발간해서 배포했다. 또한 군사령부와 사단 정치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어합화 12~30개를 담아서 자체적으로 『영어학습수책(英語學習手冊)』과 『대미군합화구호(對美軍喊話口號)』를 발간했다.<sup>76)</sup>

73) 조선인민군, 『합화집』, 18~41쪽.

74) 一〇九部 編印, 『喊話手冊(聯隊教材)』(평양: 兵團本部, 1952.10), 1~9쪽,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712.

75) 八〇二部 編印, 『喊話手冊(供聯隊敵工小組用)』(평양: 兵團本部, 1952), 1~2쪽,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713.

76) 中國人民志願軍 政治部 編印, 『〈中英對照〉戰場喊話與簡單用語』; 中國人民志願軍 第五部二排 印, 『戰場喊話用語』(평양: 中國人民志願軍, 1951), NARA,

인민군의 영어합화집은 중국군과 달리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1951년 12월에 일괄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총 52쪽 분량이었다. 이 합화집은 “1. 영어자모(26자), 2. 모음자의 발음, 3. 자음자의 발음, 4. 쓰는 법, 영어합화에 대한 주의, 제1편 기본 합화집, 제2편 포위된 적에 대한 합화집, 제3편 대치하고 있는 적군에 대한 합화집, 제4편 고급 합화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합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합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1〉 인민군 영어합화집의 합화 사례<sup>77)</sup>

합화집 구분	합화 수	영문	발음	국문
기본 합화집	19	GI's! Don't shoot! Don't be afraid! Come here!	취.아이즈! 포운트 슈-트! 포운트 뻬- 어프레이드! 컴 히어!	미국 병사들이여! 쓰지마라! 겁내지 마라! 이리오라!
포위된 적에 대한 합화집	9	U.N.Forces! Now you are surrounded, Your tanks and guns are all destroyed!	유-엔 포-씨스! 나우 유 아 씨라운디드. 유어 탱크스 앤 건즈 아 올 디 스트로이드! 씨렌더 앤 썬이브 유어 프레셔스 라이프!	유-엔군이여! 지금 너이들은 포위되었다. 너이들의 탱크와 대포는 전부 파괴되었다! 투항하라 그리하여 너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원하라!
대치하고 있는 적군에 대한 합화집	10	Don't die in vain; your loved ones are awaiting you at home.	조운 따-이 인 베인; 유어 러브드 원즈 아 어웨이팅 유 엘 호움.	개죽음을 하지 말라; 당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다.
고급 합화집	10	Negro soldiers! You are oppressed people. Don't die for the white man. Think now! Come over to our side. We can welcome you as our friends,	니-끄로우 쏘울져스! 유 아 어프레스트 피-플. 포운 다이 포- 더 파일 맨. 싱크 나우! 컴 오우버 투 아우어 싸이드. 위- 캔 웰컴 유- 애즈 아우어 프렌즈.	흑인 병사들이여! 당신들은 압박받는 인민들이다. 백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말라. 좀 생각해 보라! 우리편으로 넘어오라. 우리는 당신들을 친우로서 맞이할 수 있다.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5079; 中國人民志願軍 第六十四軍司令部 編印, 『英語學習手冊』; 中國人民志願軍 第一九一師政治部 編印, 『對美軍喊話口號』.

77) 표의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조선인민군, 『합화집』, 18-52쪽.

총정치국은 유엔군에 대한 심리전을 전개하기 위해 이 책자에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48개의 영어합화를 수록했다. 그리고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병사들이 영어합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글로 단어의 발음을 병기해 놓았다. 영어합화는 쉽고 짧은 문장으로 작성되었으며, 전투원의 지식수준과 전투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되었다. 합화의 내용은 주로 투항 권유와 투항 방법, 포로·부상병에 대한 대우, 인종갈등 조장, 귀향·귀국외식 조장, 부정의의 전쟁에 대한 선전, 휴전협상 타결 촉구, 미·영의 대일강화조약 비판, 평화사상 옹호 등이었다.<sup>78)</sup> 또한 인민군은 영어합화의 대상이 대부분 미군 병사들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의 실정에 맞게 물질적·심리적 문제를 포착해서 단순하고 구체적인 합화를 많이 구사하라고 지시했다.<sup>79)</sup>

영어합화집의 내용을 전투원들에게 교육하는 임무는 군단과 사단의 적공지도원들에게 부여되었다. 이들은 강습과 학습회 등을 통해 산하의 전체 초급 적공조원과 다수의 전투원들에게 영어합화를 학습시켰다. 영어합화는 무엇보다 정확한 발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먼저 적공지도원들이 모범적인 발음을 들려주고, 이를 전체 전투원들이 집단적으로 암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각 전투원들에게는 영어합화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언제든지 부를 수 있게 암송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적공지도원들은 일정한 학습기간이 종료된 후에 전투원들의 습득정도를 검열했다. 영어합화는 국문합화와 달리 중대나 소대 단위로 여러 사람이 제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창했다. 한편 인민군은 영어합화에 적공조직 뿐만 아니라 미군·영연방군의 포로를 활용했다. 각 부대에 “미·영의 포로나 투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을 이용해 적군의 내부형편과 실정

78) 조선인민군, 『합화집』, 18-52쪽.

79) 「영어합화에 대한 주의」,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영어합화집』, 16쪽.

에 적합한 합화를 실시했다.<sup>80)</sup>

그러나 일반 병사들은 평균적으로 소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외워서 합화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민군은 남한에서 올라온 의용군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부대원을 선정해서 영어합화를 맡겼다. 제6사단은 1951년 8월 전투에서 합화사업을 추진해 다수의 적군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때 영어합화를 담당할 인물 중 한 명은 1950년 8월에 서울에서 입대한 의용군 최모(某)였다. 그는 당시 제6사단 제13연대 제2대대 제4중대 전사이자 적공조원이었다. 최모는 8월 25일에 비둘기고개 전투에서 영어합화를 진행해 미군 중대장을 포함해 미군 23명을 투항시켰다. 같은 전투에서 제4중대 제1소대 제1분대 적공조장 강병택은 미군 4명, 제3소대 제3분대장 리만식도 미군 4명, 제1소대 제3분대장 오선영도 미군 5명을 투항시켰다. 제4중대는 이 전투에서 미군 40명과 국군 2명을 합화를 통해 포로로 잡은 결과, 제6사단에서 “영문합화중대”로 불리게 되었다.<sup>81)</sup>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의 적군와해사업 방식과 매체는 미국의 심리전 방식·매체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심리전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한 매체는 대부분 뼈라·라디오·확성기였으며, 핵심 매체는 뼈라였다.<sup>82)</sup> 미군 뼈라의 88%는 극동 공군 전략폭격사령부의 제98폭격대가 공중에서 살포했다.<sup>83)</sup> 즉 미국은 주로 전단·화보·유인물 등 시각매체를 통해 심리전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시각심리전(視覺心理戰)을 추진했다. 이에 비해 북한이 심리전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한 매체는 대부

80) 위의 글, 14~16쪽.

81) 제327군부대 정치부장 김강, 『지령: 적군와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82) 김영희, 「한국전쟁 기간 뼈라의 설득커뮤니케이션」, 313쪽.

83)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심리전 조직과 전개양상」 『한국사론』 제50호 (2004), 384쪽.

분 포로·빼라·합화였다. 북한은 라디오·확성기·폭격기 등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주로 포로·합화 등 인적 전달매체를 통한 대면심리전(對面心理戰)을 추진했다.<sup>84)</sup> 결국 미국의 심리전 수행방식이 물적 심리전이었던 반면, 북한의 심리전 수행방식은 인적 심리전이였다.

#### IV. 맺음말

북한은 6·25전쟁 시기에 무력에 의한 군사작전과 함께 적군의 전투의지를 상실시키고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 적군와해사업이라는 심리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북한의 심리전은 미국의 심리전과 달랐다. 미국의 심리전 매체는 빼라·라디오·확성기였으며, 핵심 매체는 빼라였다. 이에 비해 북한의 적군와해사업 매체는 특수전·포로·빼라·합화였고, 핵심 매체는 포로였다. 미국은 심리전의 이데올로기를 라디오·확성기·폭격기 등 물적 자원을 통해 원거리에서 전파했지만, 북한은 심리전의 이데올로기를 포로·적공조원·전투원 등 인적 자원을 통해 최전선에서 전파했다.

북한은 6·25전쟁 동안 심리전에서 상대방인 유엔군을 국가와 개인으로 분리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 즉 침략하는 국가와 강제로 동원된 병사라는 이분법을 빼라와 합화로 선전함으로써 유엔군 병사들이 넘어올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었다.<sup>85)</sup> 그리고 포로들을 인민군에

84) 대면심리전과 시각심리전의 개념은 다음을 참고했음.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114쪽; 258쪽.

85)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전선부대, 『리승만 괴뢰군 장병들이여』 (평양: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1953),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7010.



편입시킴으로써 심리전의 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쟁의 정치적·사상적 우위를 선전했다. 미국과 북한의 시각 심리전과 대면 심리전의 차이, 물질 심리전과 인적 심리전의 차이는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강조하는 미군 뼈라와, 군대의 정치·사상적 승리를 강조하는 인민군 뼈라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sup>86)</sup>

6·25전쟁의 심리전은 1951년에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어느 쪽도 전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자 휴전협상의 쟁점은 포로송환문제로 귀착되었다. 북한은 포로를 심리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상정했고, 적군와해사업의 성과로 획득한 포로를 인민군에 편입시켜 직접 심리전에 투입했다. 그러나 미국은 국군 포로를 인민군에 편입시킨 북한의 심리전과, 그 결과로서 원래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제출된 유엔군의 포로 규모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sup>87)</sup> 그러므로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히려 북한이 전쟁의 목표 중 하나로 삼았던 정치적·사상적 승리였고, 그 방법은 포로의 자원송환이었다.<sup>88)</sup>

북한의 심리전은 미국의 심리전과 달리 물질 자원이 아니라 인적 자원을 통해 수행되었고, 북한 지도부는 적의 ‘투항’과 포로의 ‘인민화(人民化)’를 선협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6·25전쟁 당시에 추진한 심리전은 휴전협상 당시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이후에도 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 중 하나였다. 그리고 전장에서 인적

86)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115~116쪽.

87) 1951년 12월 당시 유엔군이 통보한 공산군 포로는 132,474명인데 비해, 공산군이 통보한 유엔군 포로는 11,599명에 불과했다. 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133~137쪽.

88) 영국 학자 로즈마리 풋은 미국이 6·25전쟁에서 군사적 승리가 요원해지자 이데올로기적 승리를 추구했고, 이것이 휴전협상에서 자원송환원칙으로 귀결되었다고 분석했다. Rosemary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al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pp. 213~221.

심리전을 수행하고 북한의 사회로 나온 적공요원 등 인민군의 제대군인들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북한의 도시와 농촌에서 주민들을 경제 복구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장으로 선전 선동하는 검증된 자원으로 활동했다.<sup>89)</sup>

■ 접수: 2021년 4월 28일 / 심사: 2021년 5월 25일 / 게재확정: 2021년 5월 27일

---

<sup>89)</sup>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제대군인의 역할은 다음 연구를 참고 바람. 서홍석, 「북한 농업협동화 시기 제대군인의 활동과 농업협동조합의 공고화」, 『한국사학보』 제74호 (2019).

##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비전향장기수구술1: 최하종』,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 김기도 편저, 『정치선전과 심리전략』, 서울: 나남, 1989.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서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0.
- 李健一, 『中國共產黨의 人民軍隊 統制論』, 서울: 다다미디어, 1998.
- 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03.
- Rosemary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al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 김민서·박지현, 「현행 1949년 제네바협약과 대한민국-6·25전쟁 포로문제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제29호, 2009, 73~99쪽.
- 김선호, 「6·25전쟁기 북한 심리전의 체계와 인적 자원」 『東方學志』 제192집, 2020, 175~206쪽.
- 김영희, 「한국전쟁 기간 뼈라의 설득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보』 제52권 1호, 2008, 306~333쪽.
- 서홍석, 「북한 농업협동화 시기 제대군인의 활동과 농업협동조합의 공고화」 『한국사학보』 제74호, 2019, 375~418쪽.
- 이윤규, 「6·25전쟁과 심리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1호, 2010, 130~148쪽.
-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현실』 제51호, 2004, 97~133쪽.
-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심리전 조직과 전개양상」 『한국사론』 제50호, 2004, 369~404쪽.
- 조성훈, 「한국전쟁 중 공산측의 유엔군 포로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집, 1997, 217~266쪽.
- 최용성, 「한국전쟁시 미군의 전술심리전 효과분석」 『軍史』 제50호, 2003, 233~256쪽.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Forces, 『Your Families Need You Back!』, 평양: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Forces, 1952,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3816.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re You Really Fighting For Freedom?』, 평양: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1951,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871.

고려서림 편, 『(美國·國立公文書館所藏) 北韓解放直後極秘資料』 6권, 서울: 고려서림, 1998.

문화선전성, 『선전자』 創刊號, 평양: 문화선전성, 1949.

사단 정치부장, 『방어전투말 휴식기간에 각구분대 초급적공와해사업일꾼들의 사업진행계획표』, 평양: 사단 정치부, 1951.7.4,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103.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一〇九部 編印, 『喊話手冊(聯隊教材)』, 평양: 兵團本部, 1952.10,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712.

제1집단군 정치부장 박병남, 『포로병 접수증』, 평양: 제1집단군 정치부, 1950.9.6,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0624.

제235군부대 문화부대장 최봉철, 『지령: 포로살상 엄금에 대하여』, 평양: 제235군부대 문화부, 1950.8.16,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0790.

제2대대 선동원 허경룡, 『적공사업에 대한 월말보고』, 평양: 제2대대, 1951.7.29,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247.

제327군부대 정치부장 김강, 『지령: 적군와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평양: 제327군부대 정치부, 1951.9.8,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249.

제3대대 정치부대장 로형중, 『적공사업 총화보고서』, 평양: 제3대대 정치부, 1951.6.29,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248.

제655군부대 정치부 적공지도원 대리 고재선, 『482군부대 정치부 적공지도원 동지 앞』, 평양: 제655군부대 정치부, 1951.9.21, NARA, RG 242, ATIS Enemy

- Documents, No.204104.
- 제655군부대 정치부, 『부대전투원들의 적군와해사업을 기일층 강화할데 대하여』, 평양: 제655군부대 정치부, 1951.9,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107.
- 제655군부대 정치부, 『적공사업 및 해방전사에 대한 몇가지 보고 제출에 관하여』, 평양: 제655군부대 정치부, 1951.6.22,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246.
- 제825군부대 정치부 선동원 김병기, 『근위六師 정치부장 동지 앞』, 평양: 제825군부대 정치부, 1951.9.4,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105.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선동부, 『〈강연자료〉 현대전쟁에 있어서의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평양: 총정치국 선전선동부, 1951, NARA, RG 242, SA 2012, Box 5, Item 37.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영어합화집』, 평양: 총정치국, 1951.12, NARA, RG 242, SA 2013, Box 2, Item 80.
- 조선인민군, 『“국군” 장교들의 거짓말에 속지말라』, 평양: 조선인민군, 1952,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6224.
- 조선인민군, 『Whom are you fighting for?』, 평양: 조선인민군, 1952,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7044.
- 조선인민군, 『포로심문서』, 평양: 조선인민군, 1950,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0568.
- 조선인민군, 『합화집』, 평양: 조선인민군, 1950.8, NARA, RG 242, SA 2010, Box 1, Item 100.
- 조선인민군 · 중국인민지원군 전선부대, 『리승만 괴뢰군 장병들이여』, 평양: 조선인민군 · 중국인민지원군, 1953,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7010.
- 조선인민군 · 중국인민지원군, 『누가 당신을 집에 돌아가 설을 못쉬게 하는가?』, 평양: 조선인민군 · 중국인민지원군, 1951,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5380.
- 조선인민군사령부 ·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 『안전보증서 - 安全通行證』, 평양: 조선인민군사령부 ·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 1953,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7162.
- 조선인민군전선총사령부 총사령관 김책, 총참모장 강건, 『명령 제84호: 적군 포로

- 취급에 대하여』, 평양: 조선인민군전선총사령부, 1950.7.20.
- 조선인민군총사령부,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역도들의 전쟁 도발1주년에 재하여 “국방군” 전체 장병들에게 격함』, 평양: 조선인민군총사령부, 1951,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5409.
- 中國人民志願軍 政治部 編印, 『〈中英對照〉戰場喊話與簡單用語』, 평양: 中國人民志願軍 政治部, 1951,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5079.
- 中國人民志願軍 第六十四軍司令部 編印, 『英語學習手冊』, 평양: 中國人民志願軍, 1951.10.4,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5080.
- 中國人民志願軍 第六五部二排 印, 『戰場喊話用語』, 평양: 中國人民志願軍, 1951,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5079.
- 中國人民志願軍 第一九一師政治部 編印, 『對美軍喊話口號』, 평양: 中國人民志願軍, 1951.3,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5080.
-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 발, 『중국인민지원군은 포로를 관대하며 죽이지 않고』, 평양: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 1951,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5641.
- 참모장 태주혁, 『정찰지령 No.8』, 평양: 제3157군부대 참모부, 1950.6.21,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0174.
- 八〇二部 編印, 『喊話手冊(供聯隊敵工小組用)』, 평양: 兵團本部, 1952.10, NARA, RG 242, ATIS Enemy Documents, No.204713.
-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한국전쟁기 뼈라』, 춘천: 한림대학교, 2000.
- 항공사단 검찰소, 『심사원사업지도서』, 평양: 항공사단 검찰소, 1950,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14.

The North Korea's Enemy Army Deconstruction Project and  
Human Psychological Warfare in the Korean War  
: Focusing on tactics to break down the enemy forces

Kim, Seon-Ho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Abstract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North Korea launched a psychological warfare called the "Enemy Army Deconstruction Project" along with military operations by the military forces. The North Korean Army(NKA) set the prisoner of war as the subject, not the object of a psychological warfare, and incorporated the Korean prisoners of war into the NKA and put them into the psychological warfare. And they planned to surrender or destroy the enemy forces internally through the psychological leaflets and slogan at the forefront.

North Korea's psychological warfare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US army. The media in the US army's psychological warfare were psychological leaflets, radio, and speakers, and the core medium was psychological leaflets. However, the media in North Korea's enemy army deconstruction project were prisoners of war, psychological leaflets, slogan, and the core medium was prisoners of war. Whereas the US army spread the psychological warfare ideology remotely through physical resources such as radios, loudspeakers, and bombers. However, North Korea propagated the

ideology of psychological warfare at the forefront through human resources such as prisoners of war and combatants.

In the end, the US army promoted visual and physical psychological warfare, while the NKA promoted face-to-face psychological warfare and human psychological warfar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claimed that the enemy surrendered itself during the psychological warfare and that the prisoners voluntarily joined the NKA. Therefore, the psychological war that North Korea promoted during the Korean War was bound to create prisoner of war and abductee issues even after the armistice was signed.

Keywords: North Korean Army, North Korea's Propaganda, Prisoner of war, Liberated Warrior, Psychological Leaflet, Cold War Ideology

---

김선호(Kim, Seon-Ho)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주제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과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다. 최근 연구로는 『조선인민군: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2020),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기원과 6·25전쟁 이전 조직·활동」(2020), 「북한의 경제·국경 인식과 북중 접경지역 경비」(2021) 등이 있다.